격려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땅에
진리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진력하시는
관음사 주지스님과 말사 주지스님,
그리고 오늘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한국불교가 오늘에
이르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이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영광과 고난을 함께해온 한국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을 존중하기는커녕 일개 종교의 포교 행위로 폄훼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마치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듯 다루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현 정권 출범 이후 여기저기서

빈발하는 종교차별 행위는 더 이상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은 동화사, 봉은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유수의 사찰을 방문하여 그들의 신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사찰 땅밟기’를 자행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에 난입해 불교를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데 이러한 시련과 위협은 결코 외부에서 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폄훼와 차별, 왜곡이 진정으로 우리 종단에게 시련이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 종단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서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행에 철저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돕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며, 우리 스스로 하여야 할 일을 외부에 대한 의존으로 해결하던 관행이 우리 불교의 자존과 권위를 훼손해온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26일 담화문을 통해, 한국불교가 오늘날 처한 현실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허물에서 기인함을
깊이 자각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 시대
정신을 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어가는 한국불교를 세우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성과
쇄신’을 결사의 정신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0여년 전
‘봉암사 결사’가 한국불교사에 큰
전환을 가져왔듯 또 하나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한 이후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공감의 뜻을 표하며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와 이웃종교에서도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한 몸짓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한국불교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청정승가로서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수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생구제 전법교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하고 있는지, 민족전통 문화의 전승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결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지침이 아닙니다. 종단 지도부가 결사를 선언한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민하여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결사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자성과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이 정부와 여당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가 국민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합시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쇄신합시다.
그리고 결사의 정신으로 쉽 없이
정진합시다. 제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한 것은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의식뿐 아니라 평소 종도로서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바탕으로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
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4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